끝나지 않은 외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알바노동자 필수상식⑤

김재섭 알바노조 경희대 분회 분회장

우리는 이런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 공부하고, 문제를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5,580원이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교부'해야 한다. 그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등의 노동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계약직에만 적용 가능하며 그 이하의 계약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불법이다. 4시간 일하면 30분을 쉬어야 하고,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 일하다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알바라도 오래 일하고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다. 노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 권리들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이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인 자본주의 사회 현실에서 가혹하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동법은 근대의 왕정이나 자본가의 시혜가 아니다. 이는 노동자가 싸워서 쟁취해낸 권리다.

알바 노동자의 권리는 알바 노동자가 쟁취해야한다

노동법이 형성된 이후, 우리는 모두 평등하며, 노동자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식은 당연시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하다. 21세기의 노예라고 불리는 수많은 알바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3년 8월에 알바노조가 출범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알바도 노동자예요?"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이 이를 명백히 설명해주고 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근로자이며, 이는 곧 노동자이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편견은 용돈을 벌기 위해 잠깐 일하는 학생의 이미지일 것이다. 그러나 올해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 1,433명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현황' 설문조사에서 알바를 선택하게 된 동기로 '당장의 수입마련'이 36.5%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생계형' 알바노동자가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학자금은 아르바이트로는 벌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청년뿐 아니라 40~50대 노동자도 알바노동 시장에 편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고, 시간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뒤로 미루더라도 비정규직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며, 알바노동도 점점 보편화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상 가능한 미래다.

이미 아르바이트 노동은 잠깐 하는 '용돈 벌이'가 아니다. 통계적으로도 500만 알바노동자라는 수치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알바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알바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알바 노동자를 대표해서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 싸워서 쟁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 싸움은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 같다.

왜 노동조합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가장 마지막에 짤리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다

흔히 노동 3권이라 불리는 헌법상의 권리는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등이다. 여기서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뭉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교섭권이고, 이 교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때 투쟁하고 싸울 수 있는 권리가 행동권, 파업권이다. 알바노동자의 권리는 알바노동자가 쟁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한국의 가장 낮은 사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속에서 쉬이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다.

1970년, 수많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박탈당했던 그 시기, 평화시장의 젊은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온몸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44년이 지난 지금, 2014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구 대다수가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이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살면서 알바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구일 것이며, 안정적인 정규직이 보장된 사람은 누구일지도 알 수 없다. 정규직이라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 공부하고, 문제를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되었고, 다시 싸워서 복직된 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를 했다. "일하다 보면 짤리는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짤리는 사람은 회사 말 잘 듣는 충신, 두 번째가 회사 말 잘 듣는 어리바리, 세 번째가 회사 말 잘 듣는 똑똑이, 그리고 마지막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운다고 가장 먼저 짤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우스갯소리가 마냥 웃기지만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참여마당

조상현
(체육학 2014)

우리의 작은 행동 그들에겐 큰 웃음으로

필자는 이번 학기 시민교육을 통해 '우리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작은 질문 하나를 던져본다. 혹시 경희대학교 캠퍼스에서 길거리를 걷다가, 혹은 쉬는 도중 청소노동자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청소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우리 조는 하루 종일 청소노동자를 따라다니며 하루 일과를 함께했다. 그 결과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카페에 앉아 과제를 할 때, 그 곳에서 공부를 하고 수다를 떠는 동안 그 분들은 학생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공부하는 강의실을 청소한다. 이를 위해 허리를 필 시간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 넓은 멀티미디어관을 혼자서 말이다.

특히, 이번 활동 중 몇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다. 멀티미디어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청소노동자에게 단 한 명의 학생조차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인사를 드리기는커녕 그분의 눈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도 있었다. 우리의 더러운 흔적을 치워주는 고마운 그분들에게 학생들은 아무 관심도 없었다.

한 청소 노동자는 "감사합니다"하고 인사를 건네는 학생을 마주하면 기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다

필자는 하루 일과를 마친 청소노동자와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분들은 대체로 학생들의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였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 당신들의 아들, 딸 같아서 청소하는데 힘이 난다고 하셨다. 하지만 버릇없는 학생들도 가끔 있어 속상할 때가 있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가끔이나마 "감사합니다"하고 인사를 건네는 학생을 마주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말씀을 남겨주셨다.

청소노동자의 작업환경은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임금도 여전히 낮다. 청소노동자는 학교 측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기조차 힘들다. 노조가 없는 국제캠퍼스 청소노동자에게 작업환경 개선과, 기본 권리 보장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노동자의 소중한 노동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서 도움드릴 것이 별로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하지만 학생들은 청소노동자가 일하는 동안 그분들에게 웃음을 전해드릴 수 있다. 힘들게 일하는 그들에게 아들, 딸로 다가가 밝게 웃으며 감사의 말을 전하는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청소노동자 아주머니의 "감사하단 인사를 건네는 학생들 덕에 힘이 난다"는 소박한 바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그들에게 작은 감사의 표현을 전하자.

▶1면에서 이어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했을까를 고민하였다

이 책의 대략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정의의 집'이라는 법정에 선 아이히만의 모습. 평범한 시민이며 친유대적이었던 아이히만이 나치당에 가입해 유대인 문제 전문가, 인간도살자로 변신하게 되는 과정, 추방이나 수용, 학살 등의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인간도살장으로 내모는 조직적인 과정을 통해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하는 아이히만의 모습, 아이히만 등이 반제회의를 계기로 본디오 빌라도처럼 양심을 버린 채 '국가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인간 도살자로 타락하는 모습, 유럽 전역에서 인간 대청소를 위해 진행된 유대인의 이송과정 등이다. 대단원에 이르면 아이히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다뤄지고, 아이히만이 사형당하는 장면과 함께 아이히만이 유죄인 이유를 한나 아렌트의 목소리로 '악의 평범성'이라 규정하며 종결된다.

한나 아렌트는 홀로코스트의 전범으로 예루살렘의 법정에 선 아이히만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했을까를 고민하였다. 그가 내린 결론은, 자신과 유대인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듯이, '흉악범이자 정신병자 아이히만'이 아닌 '순진무구한 아이히만의 무사유'였다. 길들여져서 수동적인 아이히만의 태도, 즉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상부조직에서 시키는 일만 근면·성실하게 한 아이히만의 평범함이 행정대학살이라는 악(惡)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또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그의 유일한 특이점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녀가 '평범한 악'이란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 안에 아이히만이 있다"는 교훈이다. 과연 우리에게 평범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평범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